

지스트, 중기부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연계 창업기업 64억 지원 기술이전·창업지원 공간·연구장비 등 제공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됐다.

24일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창업도약패키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총 사업비 64억5,000만원을 배정받아 창업기업 지원에 나선다.

예비창업패키지에는 특화분야(AI)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총 사업비 24억7,000만원을 배정받아 예비창업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7년 창

업도약기 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사업의 고도화, 판로 확대, 혁신성장 등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특히 GIST는 올해 처음 신설된 글로벌 연계 사업화 지원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대상으로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R&D자금 최대 4억원 연계 ▲교육·컨설팅·네트워킹 등을 글로벌 기업과 연계해 창업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GIST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구성, 투자조직 구성 및 투자금 확보, 교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이전·창업지원 공간·연구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제품 제작, 지적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평가를 통해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평균 5,165만원, 최대 1억원 한도까지 지원해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교육 및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 멘토로 지정해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GIST는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4차 산업분야(AI)를 시작으로 청년 및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예비창업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두 1,700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GIST는 특화분야 600명 중 40명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한다.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는 청년분야 28개의 업체, 중장년분야 9개의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창업 기업들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위해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구성, 투자조직 구성 및 투자금 확보, 교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이전·창업지원 공간·창업동아리를 활용해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GIST 기업지원센터 기성근 센터장은 "GIST는 광주·전남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창업지원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장흥 정남진산업고 윤정현 교사 '글로벌 교사상 50인'에 선정

교육계 노벨상... 140개국 1만 2,000여 명 지원

전남도교육청은 장흥 정남진산업고등학교 윤정현 교사(사진)가 2020년 '글로벌 교사상' 파이널리스트 50인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으로서 파이널리스트 50인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교사상'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타르 등에서 55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글로벌 에듀케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GEMS)' 그룹 산하 바키재단이 제정한 상으로 교육계의 '노벨상'이라 불리고 있다. 상금만 해도 100만달러(약 12억원)에 이를 정도로 권위를 자랑한다.

2015년 제정돼 6회째를 맞은 올해 '글로벌 교사상'에는 전 세계 140여 개국 1만 2,000여 명의 교사들이 지원했으며, 바키재단 측은 교사, 교육 전문가, 언론인, 관리, 기업인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파이널리스트 50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6월에 10인, 10월 중 최종 수상자를 선정해 2020년 글로벌 교사상을 수여한다.

윤정현 교사는 28년 교직생활 중 27년을 장학, 보성 등 농어촌학교에서 근무했다.

기계과 교사로서 교육과정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



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농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지적자, 굴삭기, 컴퓨터 등 동아리를 조직해 밤 10시까지 실습실을 개방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윤 교사가 지도한 학생 4명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상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됐고, 6차레나 전국 고등학교 최다 자격증 취득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나눔봉사활동 동아리를 조직해 지역 양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기술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전국중고생봉사대회와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등 11개의 대회에서 윤 교사가 지도한 학생들이 장관상,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수상 등의 실적을 쌓았다.

또한, 홍조근정훈장, 모범공무원상, 올해의 스승상, 오리 이원익 청백리 대상, 각종 장관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조기철 기자

광주대 불법 체류 유학생 호남 유일 1% 미만 인종

광주대학교가 호남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종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 주관 '2019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를 포함한 22개 일반대학 중 불법 체류율 1% 미만 대학으로 광주대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호남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다.

불법 체류율 지표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류 지원을 위해 비자발급 및 체류 관리 등에 대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를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국적이 관계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심사를 받는 등 간편하게 입학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의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받게 되며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가산점 부여, 해외 한국 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등 교육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11개 언어로 국내외에 공개되며 법무부 및 외국 정부에서 활용하도록 영단이 제공된다.

/조기철 기자



동강대 피택사업단은 최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과 'P-Tech' 훈련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영광 대마산단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동강대 제공

동강대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 본격 추진

영광군·한국자동차연구원과 훈련센터 조성 협약 대마산단 강의·실습실 마련...기계계열 근로자 교육

동강대학교가 성공적인 'P-Tech'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고숙련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에 본격 맞을 올린다.

24일 동강대에 따르면 피택사업단(단장 김명수)은 최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과 'P-Tech' 훈련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민숙 총장과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노기환 한국자동차연구원전남본부장, 나종관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연구센터

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동강대는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과 'P-Tech' 훈련센터 조성과 운영에 힘을 모으고 e-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또 e-모빌리티 관련 신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행·재정적 활동에 협력한다.

동강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기술융합형 'P-Tech'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최대 6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계자동차학과와 호령조리영양학부 2개 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동강대는 이번 협약으로 영광 대마산단

단지 e-모빌리티 연구센터 내 'P-Tech' 사업 관련 강의실과 행정실을 비롯한 5층 가공기와 소프트웨어 등의 훈련 장비를 갖춘 가공실습실 등에서 오는 30일부터 매주 토요일 기계 계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동강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학습병행 기업체 발굴에 나섰다.

기계 계열의 경우 GTM(주), 광주프리트, 다인시스템, 하남전기, 전진TTS, 하이텍산업개발, 뉴원E&C, 아람 CES, 대경JM 등 기업체 9곳에서 18명의 근로자가 참여한다.

식품계열은 담양한과, 청수F&C, 라마다 광주, 한화순천만정원, 쉐프뉴욕광양, 베비에르 두암점, 쿠우쿠우점점, 썬베이커리 등 산업체 9곳에서 21명이 매주 월요일 교내에서 교육을 받는다.

/조기철 기자

동신대, 비대면 수업 1주일 추가 연장

내달 6일 대면수업 시작

동신대학교는 24일 코로나19 위기관리 총괄본부 회의를 열고 비대면 수업을 다음달 5일까지 1주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동신대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4월6일로 연기한 초·중·고등학교와 학사 일정을 맞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신대 대면 수업은 오는 4월6일부터 운영되며, 이 기간 수업은 온라인과 원격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조기철 기자

서부교육지원청, 전국 최초 학교급식 현장점검단 운영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현장점검단을 구성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24일 현장전문가로 위촉된 영양교사·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현장점검단은 학교급식 위생 점검 방식에 대한 혁신적 제도개선으로 마련됐다. 학교급식 현장과의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식중독 제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협업 행정체계이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영주 교육장은 "전국 최초로 구성된 이번 현장점검단은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밀착형 열린 급식 운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대라수 는 고객의 요구를 앞서 생각하는
설계와 시공으로 공간을 넘어 도시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대라수건설(주)

DAELASOO